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Ⅲ그룹)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전국 18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 총인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수도 안전 관리 대응 능력, 하수관로 유지 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개분야 40개 항목을 꼼꼼히 따져 평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6년~2028년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 접수

정읍시가 농업인의 지역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공급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류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을 조절하기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하석을 무상 공급, 지역 유지 보전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직접 살포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단위 공동살포단이 살포를 대행할 예정으로, 신청 시 공동살포 희망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

다만 공급구역이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 농지 소재지에 따라 공급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화

## 정읍시, 바이오기업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며, 바이오기업을 위한 공공임대형 사업공간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료·제약 분야 레드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센터의 설립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과장,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임문택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



립 부지의 입지 여건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전북경제 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바이오기업들에게 공공임대형 사업공간 제공을 위한 건축 규모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을 종합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 연내에 최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사업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비의 최대 70%, 18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소규모 창업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 집'이 하북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새 건물은 회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의 새 장을 열게 됐다.

## 정신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 정읍시, '마음사랑의 집' 준공... 회원들 재활·사회복귀 지원

정읍시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 집(시설장 채완순)'이 하북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새 건물은 회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의 새 장을 열게 됐다.

시는 지난 28일 신축 건물(서부산업도로 483-9)에서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 전북지지도청 관계자, 유관기관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와 공사 과정 영상을 시청한 후, 케이크 및 테이프 컷팅식 등으로 진행됐다.

'마음사랑의 집'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 기부금 5200만원 등 총 14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66.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식당, 상담실, 사무공간이 마련됐으며, 2층은 교육실과 직업재활훈련실로 구성돼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정이다.

이번 시설은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10월에 완공됐다.

채완순 시설장은 "이번 신축으로 회원들이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2000년 창립 이후 정신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마음사랑의 집이 이번 신축을 통해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시민 편의 최우선 강조

### 이학수 정읍시장, 도로장비관리소 등 5개소 현장목소리 청취

이학수 정읍시장이 주요 사업장 5곳을 현장 방문하며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지난 28일 이학수 시장은 △도로장

비관리소 △술문화관 △샘고을 떡 어울림플랫폼 △메이플 게스트하우스 △패브릭 아트갤러리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진



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매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 이전 사업들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장비관리소에서는 제설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설차량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제설용품 관리를 철저히 해 민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려"고 주문했다.

정읍 술 문화관에서는 "술문화 전시장 설계 전 선진지 견학과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와인카페 신메뉴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샘고을 떡 어울림 플랫폼, 메이플 게스트하우스, 패브릭 아트갤러리에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시설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관광 홍보대사 부안 위케이션 홍보 영상 촬영

부안군은 지난 28일과 29일 부안관광 홍보대사와 함께 부안 위케이션 홍보 영상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촬영은 부안의 자연적 매력과 위케이션 환경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촬영 기간 동안 부안의 대표 명소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영상에 담겼다.

첫날인 지난 28일에는 부안읍과 변산면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부안상설시장에서 시작된 촬영은 변



산 위케이션 센터, 노을바라기 전망대, 인공암벽장 등으로 이어지며 부안의 매력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특히 촬영에는 부안 관광택시 기사도 함께 참여해 지역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소개하며 영상의 생동감을 더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줄포 위케이션 센터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중심으로 줄포의 독특한 여가 공간과 위케이션 환경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한편 제35회 미스변산 수상자는 부안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부안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희망찬 새해 맞이 '경관조명' 점등식

이번 점등식은 고창군의 2024년 한해를 더 돌아보고 내년도 변화와 성장 을 향해 희망찬 2025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 회 조민규 군의장과 군의원을,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환한 불빛처럼 군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명성을 더욱 알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경관조명 시설은 군청 광장 및 회진교차로 부근에 설치 되었으며 높이 11m, 폭 4.5m 세워진 대형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매일 저녁마다 불이 켜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